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100주년 기념
북한 지역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목회자들

북한지역 그리스도의 교회들

조동호(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빛과 생명 그리스도의 교회)

I. 북한 지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개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는 크게 두 지류가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基督敎會,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협의회 및 총회)과 ‘그리스도의 교회들’(基督의敎會, Churches of Christ, 교역자협의회)이 있다. 먼저, 교파명이 ‘기독교회’(基督敎會)였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도쿄 요츠야선교부(Yotsuya Mission)의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부부에 의해서 1924년 3월 25일 서울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목회자들의 상당수가 성결교 출신이었다. 포교관리자 성낙소 목사가 1932년 6월 11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로 교파명을 제출하였다가 1936년 7월 8일 이인범 목사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교파명변경계를 제출하였다. 북한지역 선교는 요츠야선교부 산하 심천조선인기독교회(후카가와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회자였던 이인범이 1932년 8월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에서 두 달간 체류하는 동안 평북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방현교회와 인근 교회들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여 많은 이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으므로 시작되었다. 장로교회였던 방현교회가 즉시로 요츠야선교부에 목회자 파송을 요청하였다. 이에 1933년 초 경성성서학원을 졸업한 이원균이 담임목사로 부임하였고, 그들과 선교부의 헌신으로 평안북도 구성군에 방현교회, 오봉교회, 평지동교회, 정주군에 용포동교회, 문인동교회, 약수포교회, 근담동교회, 신의주교회 및 평안남도 중화군 동두면 대류리교회가 1930년대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되었다. 1941년 4월 1일부터는 선교사들의 입국활동이나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일본인과 한국인들은 외국후원을 반드시 거부해야했다. 이에 요츠야선교부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매월 주던 보조금을 1941년 초에 한해 치를 몰아서 주었고, 그해 말까지 모두 본국으로 철수하였다. 돈은 1936년 6월 24일 별세한 커닝햄기념기금(The Cunningham Memorial Fund)에서 조달되었다(*Tokyo Christian*, Feb.1941).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들로 남아 있던 교회들은 총일곱 교회로서 구성군에 방현교회, 오봉교회, 평지동교회, 정주군에 용포동교회, 문인동교회, 약수포교회, 그리고 신의주교회였다. 나머지 근담동교회와 대류리교회는 1937년 이후 선교부와 멀어졌다. 한편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 이인범 목사는, 전임 포교관리자 성낙소 목사와의 갈등으로, 1937년이 되어서야 북한지역의 교회들과 교역자들을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할 수 있었다. 이 때 제출된 교회들은 오봉교회, 용포동교회, 문인동교회이고, 나머지 교회들의 제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성군과 정주군의 교회들에서 2-3명의 사역자들이 배출되었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된 교역자들에는 방현교회에 김성산 목사와 주정국 목사, 오봉교회에 장신주 목사 그리고 용포동교회와 문인동교회에 최성진 장로이다. 다른 한편 도쿄 요츠야선교부의 초청으로 한국 주재 선교사가 된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는 1935년 4월 25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와는 별개로 ‘기독교회’(基督敎會)로 교파명을 제출하였는데, 이 ‘기독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들’(협의회 및 총회)이며, 해방직후 ‘기독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교파명을 변경하였다. 또 다른 한편, 교파명이 ‘기독교회’(基督の敎會)였던 ‘그리스도의 교회들’(교역자협의회)의 북한지역 선교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감리교 목사였던 동석기 전도자가 재차 미국에 입국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들’

(基督敎會)의 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에서 M.A. 학위를 받은 후 선교사 파송을 받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교회들'(基督의敎會)의 대학교(David Lipscomb University) 신학부에서 추가 연구를 한 후에 선교사 파송을 받아 1930년 11월 8일 함경남도 북청군에 귀향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동석기는 1930년 11월 29일 함전교회를 시작으로 1931년 5월 22일 서흥교회, 1932년 5월 22일 수동교회를 개척하였다. 동석기는 1934년부터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基督敎會)과의 관계를 끊고 '그리스도의 교회들'(基督의敎會)만을 대표하는 선교사로 여생을 헌신하였다. 1936년 10월 11일 빙애(임자동)교회를 개척하였고, 이어서 만경교회, 죽평교회, 수서교회를 개척 또는 기존의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들로 흡수하였다. 함전교회, 서흥교회, 수동교회는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교역자협의회측 그리스도의 교회들이었다. 동석기는 1937년 5월 12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기독교교회'(基督의敎會)로 포교계를 제출하였다. 동석기는 북청의 일곱 개 교회들 가운데 다섯 개 교회들 곧 함전교회, 서흥교회, 수동교회, 빙애교회, 만경교회를 1938년 4월 4일 제출하였고, 죽평교회를 1938년 7월 27일, 수서교회를 1940년 11월 10일에 제출하였다. '기독교교회'(基督의敎會)들도 '기독교교회'(基督敎會)와 마찬가지로 해방직후 '그리스도의 교회'로 교파명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협의회 및 총회측과 교역자협의회측의 교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및 총회측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인의 교회'(Christian Churches)에 가깝고, 교역자협의회측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의 교회'(Churches of Christ)이다. 도쿄 요츠야선교부의 한국담당 선교사 오웬 스틸(Owen Still)은 1939년과 1940년에 각각 두 차례씩 한국의 기독교교회(基督敎會)들을 순찰하였는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한국인들의 열정은 매력적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찬양한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한다. 그들은 선포된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둘째,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환대가 아름답다. 이보다 친절할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이 손님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 무엇도 그들의 훌륭한 우정의 열정을 식힐 수 없다. 셋째, 한국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은 인상적이다. 한국에는 모더니스트가 거의 없다. 장로교 교인들은 그곳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해왔으며 사람들에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국인에게 보여주면 모든 논쟁은 끝난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희생정신은 고양되고 있다. 어디를 가든, 돈을 요구할까봐 걱정을 한가득 안고 한국에 왔지만, 월급을 올려 달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올해 한국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쌀은 평소 공급량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다. 배고픈 아이들이 볼을 꼬집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 용감하게 전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의 복음주의 정신은 고무적이다. 그들은 열렬히 복음을 전한다. 그들이 외곽 지역에 개척만 하면, 외곽 지역들은 곧바로 교회들이 된다. 어떤 집사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바라봤다. 그는 교회에 가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겠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집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집회소로 개방하였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일 뿐'(Christians only)의 교회가 서게 되었다. 한국인 형제자매들한테서 열정적이고, 친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희생적으로 바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배우자(Tokyo Christian, Jan.1940).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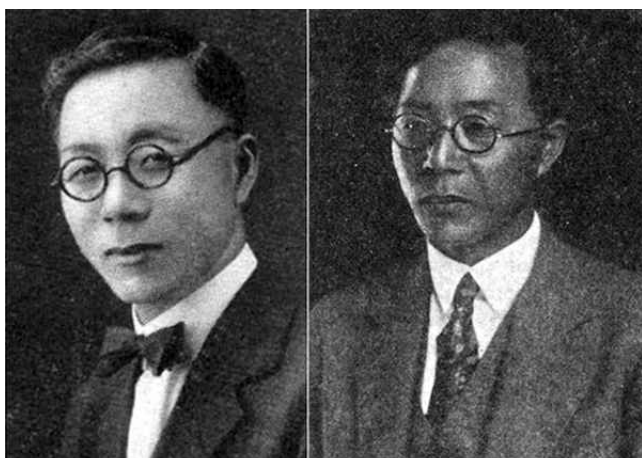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1937-49, Korean Christian Mission); *Tokyo*

Christian (1901-1997, Yotsuya Mission);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6: <http://kccs.info/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쿼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II. 함경남도 지역 그리스도의 교회들(基督の教會)

1. 북청 지역 그리스도의 교회(基督の教會) 사역자들

1) 동석기 전도자(董錫琪, 1881.05.05.-1971.12.26.)



동석기(1881.5.5.-1971.12.26.)
 [출처: 1927년경 Cincinnati Bible Seminary] [출처: 1931년경 Gospel Advocate]

동석기 전도자(목사)는 본적이 함경남도 북청군 니(이)곡면 초리 1709번지이며, 1881년 5월 5일(양력) 동주흥과 김씨 부인의 4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동석기는 한학을 수학하였고 만 16세에 만 14세인 김씨(Emma Kim)와 혼인하여 세 명의 자녀를 두었다. 동석기는 20살 무렵에 상경하여 임시 방역위원(防疫委員)으로 근무하다가 1902년 10월 28일 ‘광제원(廣濟院) 사무위원’이라는 관직을 받았으나 오래지 않아 사직하였다. 이 무렵 동석기는 하와이 사탕수수농장 이주노동자 모집에 지원하

였다. 동석기가 하와이 호놀룰루(Honolulu) 항에 도착한 것은 23세 때인 1904년 1월 9일이었다. 동석기는 감리교신자인 농장주 밑에서 주중에 하루 10시간씩 일하였으나 성실하고 근면하여 책임을 다하였다. 그를 지켜본 농장주는 9개월쯤 지난 어느 날 그를 불러 본토에 보내 공부할 기회를 열어 주었고, 동석기는 본토로 건너가기 전 감리교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 1906년 4월 18일 발생한 대지진을 목도하면서 회심체험을 하였다. 이후 동석기는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 시 중앙학교(1906-09년), 일리노이 주 시카고 시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 1909-11년, 법학), 게렛신학교(Garrett Biblical Institute, 1911-13년, B.D.)에서 수학하였다. 동석기는 1913년 10월 16일 귀국길에 올라 10월말에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하와이로 떠난 지 꼭 10년 만에 감리교회 목회자로 귀국하였다. 동석기가 고향 북청을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3년 후인 1916년이였다. 동석기는 귀국 이듬해인 1914년부터 1927년까지 조선 미(북)감리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였고, 1930년부터는 ‘그리스도의 교회’(基督の教會) 포교관리자 및 선교사로 활동하였다. 1913년 미국에서 귀국 후 동석기는 강원도 원주지방 순행목회자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1914년 6월에 개최된 조선 미(북)감리교회 연회에서 집사목사안수를 받았다. 동석기는 감리교목사 시절 동막교회(경기도 부천시 문학면 동춘리), 내리교회(경기도 인천부), 서대문정 교회(경기도 경성부), 삼개교회(三介教會, 경기도 경성부 마포동), 남양리 교회(경기도 수원군 음덕면)에서 목회하였다. 동석

기는 1919년 수원 남양교회를 섬기는 동안 사강, 비봉 등지를 순회하며 교인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고, 3월 1일 파고다공원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8월 검거되어 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중생활을 하다가 11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출옥하였다. 출옥 직후에는 창전리교회(경기도 이천군 읍내면 중리)와 내촌리 교회(경기도 이천군 백사면)에서 1920년 10월까지, 청양교회(충남 청양읍)에서 1922년 10월까지 시무하였고, 이후 조선 미(북)감리교회의 만주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장교육(延長教育)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갖기 위하여 1927년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정동감리교회에 적을 둔 '본처목사(本處牧師)'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1930년 1월 15일 감리교회로부터 동석기의 포교폐지계가 제출되었다. 동석기는 1927년 11월 미국에 재입국하여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 '신시내티성경신학교'(Cincinnati Bible Institute, 1927-29년, M.A.)에서 수학하였다. 동석기는 1929년 신시내티에서 트럼프(Trumph) 목사로부터 침례를 받고, 독립교회들인 '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로부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基督敎會)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 직후 동석기는 미국 중남부 지역을 여행하던 중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의 지도자들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데이비드 립스콤 대학'(David Lipscomb College)에서 단기간 수학하였으며,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로부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基督敎會)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동석기를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에 추천서를 써 준 인물들 가운데 예일대(B.D.)와 하버드대(A.M. & Ph.D.)에서 학위를 받은 홀 로리 칼훈(Hall Laurie Calhoun, 1863-1935) 박사가 있었다. 칼훈 박사는 그리스도의 교회들(基督敎會)의 유서 깊은 성서대학(College of the Bible, 현 Lexington Theological Seminary)의 학장, 그리스도의 교회들(基督敎會)의 프리드-하드만 대학(Freed-Hardeman College)의 부학장, 데이비드 립스콤 대학의 교수로 봉직했던 두 종류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모두 섬긴 석학이었다. 이렇게 하여 감리교회 목사였던 동석기는 두 종류의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 양측 모두로부터 선교사로 임명 받고 직접 한국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다. 동석기가 두 번째 귀국길에 오른 것은 1930년 10월 18일이었고, 고향 북청에 도착한 것은 11월 8일이었다. 동석기는 북청에 도착한지 만 3년이 지난 1934년부터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基督敎會)과의 관계를 끊고 그리스도의 교회들(基督敎會)만을 대표하는 선교사로 여생을 헌신하였다. 동석기 전도자는 서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基督敎會)들'의 제2대 포교관리자였던 존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를 만난 후 포교계를 계출하지 아니하고 선교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교회들(基督敎會)도 1924년부터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펼쳤으나 포교계 계출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도쿄 요츠야 선교부로부터 조선포교관리자로 파송된 성낙소 목사가 처음으로 1932년 6월 11일 '동경사곡 선교회 기독교회'(1936년 7월 8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변경)를 계출하였고, 또 미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파송된 최초의 미국인 선교사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가 1935년 4월 25일 '기독교회'(基督敎會)란 교단명칭을 계출하여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동석기는 곧바로 1937년 5월 12일 '기독교회'(基督敎會)라는 교단명칭의 포교계를 계출하였다. 그리고 7월 6일 '다옥정교회'의 포교소설치계와 강문석 전도자(일본 關西學院,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및 Freed-Hardman College 수학)가 설립한 '동교교회'의 포교소설치계를 계출하였다. 이 계출은 요츠야선교부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교회들보다는 수년 늦지만, '기독교회'의 제2대 포교관리자 존 채이스(John T. Chase)의 제1호 교회로서 김요한 목사(협성신학교, 미국 Millsaps College 수리학과, Emory University B.D.)가 설립한 '기독교회 신당정교회' 포교소설치계보다는 17일 빠른 계출이었다. 이후 동석기는 고향 함경남도

북청군에 개척한 다섯 개의 그리스도의 교회들(基督の敎會) 곧 ‘함전교회’(니곡泥谷면 초리 1997번지, 1930년 11월 29일 설립), ‘서흥교회’(덕성면 서흥리 360의 6번지, 1931년 5월 22일 설립), ‘수동교회’(덕성면 수동리 1078의 3번지, 1932년 5월 22일 설립), ‘빙애(임자동)교회’(하거서면 임자동리 108번지, 1936년 10월 11일 설립), ‘만경교회’(하거서면 임자동리 1165번지, 설립일자 불명)를 1938년 4월 4일 계출하였고, 여섯 번째 교회인 ‘죽평교회’(북청읍 죽평리 603번지, 1938년 4-7월경 설립)를 1938년 7월 27일에,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인 ‘수서교회’(덕성면 수서리 607번지, 1930년대 전반기 설립)를 1940년 11월 10일 계출하였다. 동석기 전도자는 1930년 11월 29일(토) 처음으로 남녀 각각 10명씩 총 20명에게 침례를 베푼 이후 전쟁의 징후로 선교사들이 대다수 철수한 1940년 말까지 또는 새로운 종교법이 시행된 1941년 4월 1일까지 10년간 열다섯 차례 침례식을 갖고 수백여 명에게 침례를 베푼 이들 일곱 개의 교회들을 설립하였다. 또 동석기는 개척된 교회들의 예배당 건축을 위해 모금에도 힘을 쏟았다. 동석기 전도자는 미국 밴더빌트대학교에서 강문석 전도자를 만나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의 지도자들에게 소개하였고, 그들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도록 도왔다. 강문석은 귀국 후 주로 서울과 경상도 지역에 교회들을 세웠다. 동석기 전도자는 1947년 1-2월 중에 서울에서 존 채이스 선교사를 만나 말하기를, 자신은 소련군이 입북하기 직전에 남하하였으나 사모와 자녀들 일부가 북한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며, 소련군이 자신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하였다. 동석기는 월남하여 남한에 내수정 그리스도의 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를 포함해서 1946-49년 사이에 총 다섯 개의 교회들을 더 세웠다. 동석기는 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파송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쏟았다. 1954년 10월에 선교사로 내한한 해스켈 체셔(Haskell Chesshir, 최수열)는 자신과 동석기가 1955년에만 500명 이상에게 침례를 베푼었다고 증언하였다. 동석기 전도자는 1971년 12월 26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만 90세에 별세하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할리우드 힐즈(Hollywood Hills, Los Angeles County, California, USA) 포레스트 론 메모리얼 파크(Forest Lawn Memorial Park)에 아들 동충모 전도자(1923.03.26.-1981.02.28.)와 함께 나란히 안장되었다.

참고문헌

「공립신보」 1906.2.13.; 「그리스도의교회」 2호(<http://thechurch.kr/magazines/8559>); 「신한민보」 1913.10.24.; 「신한민보」 1927.12.29.; 「조선 미감리교회 제7회 연회록」 1914.6.; 「제9회 연회록」 1916.4.; 「제10회 연회록」 1918.6.; 「제12회 연회록」 1919.11.; 「제15회 연회록」 1922.10.; 「조선총독부관보」 1916.3.30.; 1916.4.10.; 1917.12.8.; 1917.12.11.; 1918.1.31.; 1919.7.15.; 1920.2.6.; 1920.2.16.; 1921.4.19.; 1930.5.3.; 1937.8.30.; 1937.10.9.; 1938.6.21.; 1938.9.28.; 1941.1.30.; 1941.2.1.; ‘동석기 전도자와 그리스도의 교회’(이준행, <http://kccs.pe.kr/rmp043.htm>); ‘동석기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김익진, <http://kccs.pe.kr/xianch43.htm>); 조선총독부기록물(생산기관: 학무국 사회과, 생산년도: 1937년, 관리번호: CJA0004842); 「참빛」 2018.9-10; 「초기 지도자 동석기 전도자」(그리스도의교회_목회자_서재룡-역사교실, <http://cochrist.kr/bbs/bbsList/63>); 『공덕교회100년사』(2004);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6: <http://kccs.info/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Christian Chronicle* 49, May.1948; *CS* 64, Aug.1929; *CS* 66, Jan.1931; *CS* 67, Jan.16.1932; *CS* 67, *CS* 67, Jun.4.1932;

Jul.30.1932; *CS* 68, Jan.4.1933; *CS* 68, Jun.1933; *CS* 68, Nov.18.1933; *CS* 69, Nov.1934; *CS* 72, Jan.1937; *GA* 72, Jul.1930; *GA* 73, Sep.3.1931; *GA* 73, Sep.7.1931; *GA* 77, Jan.3.1935; *GA* 77, Mar.28.1935; *GA* 92, Mar.1950; *Korean Messenger*, May.1947; *Missionary Messenger* 11, Nov.1933; *Oklahoma City Times*, Sep.1.1958; *Restoration Herald* 8, Aug.1929; *The Houston Post*, Jun.9.1956; *The Korean Reporter*, Mar.-Apr.1972; “A number of Dong’s works, as well as information about and pictures of his grave”: http://www.therestorationmovement.com/_states/california/dong.htm; “Church of Christ Mission Photography Collection”: https://digitalcommons.acu.edu/coc_missions_photos/; “Restoration History by S. K. Dong” and “S. K. Dong, 1881-1971”(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and “Suk Kee Dong and His Pioneer Work in Korea, 1930-1949”(Joon Seo Kee, A Research Paper, Harding Graduate School of Religion, 18 May 1977): https://www.therestorationmovement.com/_states/california/dong.htm; “Suk Kee Dong(장지)”: <https://www.findagrave.com/memorial/95473842/suk-kee-dong>; “The Church in Korea,” in Abilene Christian College Bible Lectures 1951(Austin, TX: Firm Foundation, 1951); *The Harvest Field*(Howard L. Schug and Jesse P. Sewell, Athens, AL: Bible School Bookstore, 1947).

[*CS*: *Christian Standard*; *GA*: *Gospel Advocate*]

2) 이흥식 전도자(李興植, 1912.6.22.-1991.1.19.)



이흥식(1912.6.22.-1991.1.19.) [출처: koreacoc.com]

이흥식은 함경남도 북청에서 출생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측량기사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다가 1939년 10월에 ‘기독교교회’(基督の教會) 포교관리자 동석기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은 후, 그리스도의 교회들(교역자협의회)의 전도자가 되어 일생을 목회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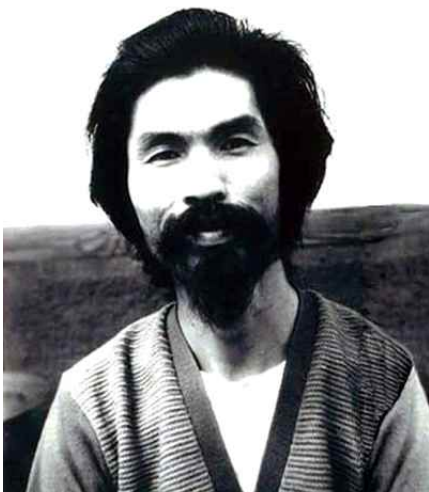
헌신하였다. 이흥식은 동석기 전도자가 설립한 수동교회(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수동리 1078의 3번지)에 출석하였고, 1947년 월남하기 전까지 수동교회를 평신도(집사) 목회자로 섬겼다. 해방 직후 러시아가 북한을 군정통치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러시아 군인들과 공산당원들의 핍박이 날로 심해졌고, 이흥식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동석기 전도자의 증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동교회의 집사였던 이흥식이 공산당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공산당원들이 그를 폭행한 것은 그가 지나치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주님의 일에 지나치게 헌신적이었기 때문이다. 견디다 못한 이흥식은 아버지의 강권(強勸)을 받아드려 1947년 2월 21일 새벽 4시경 부모와 처자식을 고향에 두고 단신으로 북청을 떠나 서울로 내려왔다. 그리고 북청을 떠난 지 13일 만인 3월 5일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흥식은 서울 내수동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동석기 전도자와 재회하였다. 이후 이흥식은 내수동교회에서 집사로 헌신하면서 동석기 전도자의 후원으로 1947년 4월부터 한국기독교성경신학교(Korea Christian Bible Seminary, 서울기독교대학교의 전신)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그리고 신학생이던 이흥식은 1948년 5월 청량리 그리스도

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이흥식은 홀로 월남하였기 때문에 이복의 가족과 아내를 생각하면서 봉헌된 독신자로서 순결하고 청빈하며 헌신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이흥식은 동석기 전도자의 후원으로 10여 개의 교회들(부산중앙, 부산서면, 부여합송, 대구, 청량리, 흥제동, 정릉, 번동, 대전중앙, 춘천)을 개척하거나 동역하였고, 10여 명의 목회자들도 배출하였다. 이흥식에게는 후배 전도자들이 아우들이요, 강서대학교 학생들이 손자와 손녀들이었으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교역자협의회)과 강서대학교가 그의 전 재산이었다. 이흥식은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교회 재산 보호에 힘썼고, ‘학교법인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학원’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리스도 신학대학(현 강서대학교) 본관인 환원관을 신축하는 등 대학 발전을 위해서도 힘썼다. 이흥식은 1980년 6월 15일 은퇴 후에 지병인 당뇨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1991년 1월 19일 79세에 별세하였다.

참고문헌

「조선총독부관보」1938.5.30.: 1938.6.21.; 「참빛」1991.1-2(통권 204호); 「참빛」2018.9-10(통권 369호): <https://cafe.naver.com/kcukim/>; 『우리 교회의 반세기사』(임학균,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1991);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사: 1930-1968』(김세복, 참빛사, 1969); *Gospel Advocate* 77, Jan.3.1935: “S. K. Dong, 1881-1971”(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https://www.therestorationmovement.com/_states/california/dong.htm; *The Harvest Field*(Howard L. Schug and Jesse P. Sewell, Athens, AL: Bible School Bookstore, 1947).

3) 양석문(1922.04.09.-1991.03.03.)



양석문 전도자(1922.04.09-1991.03.03)
[출처: 그리스도의 교회 제2권 2쇄]

양석문은 함경남도 북청읍 서리에서 1922년 4월 9일 출생했다. 양석문의 집안은 대대로 의사 가문으로 외가 쪽에는 고종황제의 어의장을 지낸 분도 있었다. 한 살 되던 때에 동경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부친을 폐결핵으로 여의고 어려운 가정형편과 질병 속에 편모슬하에서 성장하였다. 양석문의 모친 유정순 여사는 경성성서학원에 다닐 정도로 신앙적 열심과 성경에 대한 학구열이 남다른 여성이었다. 양석문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 북청 성결교회(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 서리 179번지)에 출석하였으며, 일찍부터 복음증거와 전도활동을 하였다. 그는 16세 때부터 이미 말씀을 선포하였다. 양석문은 서당에서 ‘대학’을 마쳤고,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양석문은 1938년 10월 9일 ‘기독교교회’(基督の教會) 포교관리자 동석기 전도자로부터 침례를 받고, 죽평 그리스도의 교회(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 죽평리 603번지)를 흥남철수작전의 혜택을 입어 월남할 때까지 평신도 목회자로 섬겼다. 양석문은 동석기 전도자가 죽평교회를 1938년 7월 27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한지 두 달 12일 지난 10월 9일에 침례를 받았고, 1941년에 모친이 장사를 하려고 매입한 가정집을 모친의 허락으로 개조하여 예배당을 마련하였으므로 양석문이 죽평교회를 평신도 목회자로 섬긴 시점은 1939-40년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석문은 회고하기를 “동석기 전도자는 미국에서 귀국하실 때 자전거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고, 자전거가 닿는 곳

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씩 생겨났다.”고 하였다. 양석문은 월남한 후 지병으로 경상북도 영천의 시골 마을에서 24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였으나 회복되어 1973년 3월부터 ‘행복한(삼선) 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였고, 1978년 1월 22일 과천에 ‘문화 그리스도의 교회’(교역자협의회)를 개척하였다. 양석문 전도자는 체계적인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나 성서원어에 뛰어난 실력을 갖췄으며 능력 있게 말씀을 강론하였다. 양석문은 평생을 혼인하지 않고 봉헌된 독신 전도자로서 청빈한 삶을 살았다. 양석문은 1991년 3월 3일 오전 11시 20분 과천에서 금식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던 중에 별세하였다. 그가 남긴 것은 몇 권의 책뿐이었다.



양석문 동석기 전도자
죽평 그리스도의 교회 침례식(1938년 10월 9일)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 죽평리 603번지
[출처: Church of Christ Mission Photography Collection]

참고문헌

‘동석기 전도자와 그리스도의 교회’(이준행, <http://kccs.pe.kr/rmp043.htm>); 「그리스도의교회」2호(<http://thechurch.kr/magazines/8559>); 「조선총독부관보」1938.9.3.; 1938.9.28.; 「초기 지도자 동석기 전도자」(그리스도의교회_목회자_서재룡-역사교실, <http://cochrist.kr/bbs/bbsList/63>); 『그리스도의 교회』(제2권 2쇄); “Church of Christ Mission Photography Collection”: https://digitalcommons.acu.edu/coc_missions_photos.

4) 이봉상(李鵬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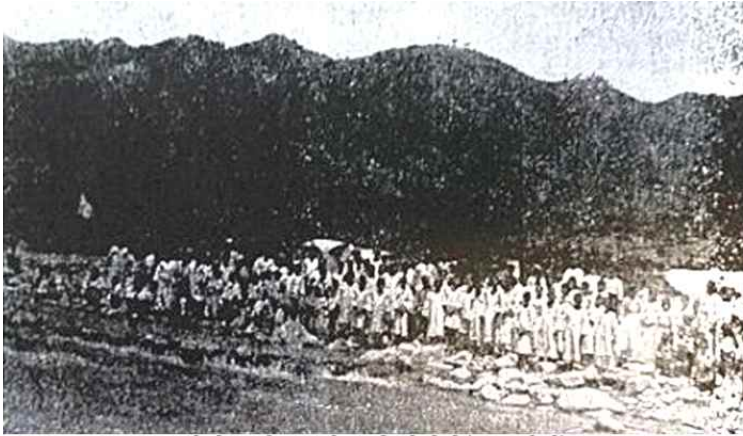
이봉상은 평신도로서 수서 그리스도의 교회(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수서리 607번지)를 목회자로 섬겼다. 수서리가 고향마을이었다. 이봉상의 손자뻘이었던 이남원(미국 글렌데일 그리스도의 교회 장로)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수서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긴 분은 새 봉(鵬)자와 서로 상(相)자를 쓰신 이봉상이셨다.” 이봉상은 아주 열성적이었고, 단돈 1전이라도 나눠 써야 된다고 가르쳤던 청백한 노인이었다. 이봉상은 건강이 나빴다. 그런 그를 친척 교인들이 권유하여 교회에 나오도록 하였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자 병이 나았다. 그러자 이봉상은 상당한 금액을 교회에 헌금하였고, 그가 건강해진 것을 본 다른 많은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다. 해방 후 교인들의 상당수가 월남하였다. 그러나 이봉상은 끝까지 남아 교회를 지켰다. 이 같은 사실은 이봉상의 누이동생 이갑중에 의해서도 드러났다. 이갑중은 월남하여 단천 출신의 남편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살았다.

참고문헌

「조선총독부관보」1941.1.30.; 1941.2.1; 「참빛」2018.9-10(통권 369호): <https://cafe.naver.com/kcukim/>; “S. K. Dong, 1881-1971”(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https://www.therestorationmovement.com/_states/california/dong.htm; *The Harvest Field*(Howard L. Schug and Jesse P. Sewell, Athens, AL: Bible School Bookstore, 1947).

2. 북청 지역 그리스도의 교회들(基督の教會)

1) 함전 그리스도의 교회(咸田 基督の教會)



함전 그리스도의 교회 침례식(1930년대)
함경남도 북청군 니(이)곡면 초리 1997번지 [출처: 참빛(2018년 9-10월호)]

함전 그리스도의 교회는 동석기 전도자가 1930년 11월 29일 함경남도 북청군 니(이)곡(泥谷)면 초리 1997번지 고향마을에 첫 번째로 설립한 교회였다. 동석기 전도자가 1930년 10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승선하여 11월 8일 집에 도착한지 20여일 만에 거둔 업적이었다. 동석기 전도자가 함전교회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한 것은 1938년 4월 4일이 었다. 동석기는 고향에 돌아온 즉시 복음전도활동을 시작하였고 성경공부 반을 개설하였다. 그 열매로 1930년 11월 29일(토) 최초의 침례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함경남도 북청의 날씨는 냇물이 결빙될 정도로 매우 추웠다. 그 차가운 물에서 남녀 각각 10명씩 총 20명이 침례를 받았다. 그들 중 7명은 장로교 출신들이었고, 한 명(아내)은 감리교회 출신이었으며, 12명은 새신자들이었다. 마을주민들은 강에서 거행되는 침례식을 본적이 없으므로 구경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중 일부는 “어떻게 얼음장 같은 물에서 먹을 감을 수 있느냐? 감기에 걸리고 말텐데...”라고 말했다. 그러나 침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감기에 걸리거나 병든 사람이 없었다. 침례식 직후 장소를 예배당으로 옮겨 감격스런 주의 만찬 예배를 드렸고,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최초로 집사 세 명, 재정담당 한 명, 주일학교 교사 네 명, 여학생들의 교사 한 명(여성)을 선출하였다.

참고문헌

「조선총독부관보」 1938.6.21.; 「참빛」 2018.9-10(통권 369호):
<https://cafe.naver.com/kcukim>; 『우리 교회의 반세기사』(임학균,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1991); “S. K. Dong, 1881-1971”(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https://www.therestorationmovement.com/_states/california/dong.htm; *Missionary Messenger* 11, Nov.1933.

2) 서흥 그리스도의 교회(西興 基督の教會)

서흥 그리스도의 교회는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서흥리 360의 6번지에 소재하였다. 서흥교회는 동석기 전도자가 북청 고향에 두 번째로 세운 교회로서 설립연도는 1931년 5월 22일이 었다. 1931년 5월 중순경에 1892년부터 1941년까지 거의 50년간 일본 도쿄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의 베테랑 선교사 존 무디 맥칼랩(John Moody McCaleb, 1861-1953)이 함경남도 북청군 니(이)곡(泥谷)면 초리 1997번지에 소재했던 함전 그리스도의 교회를 방문하여 12일간 11회 전도집회를 동석기의 통역으로 개최하였고, 인근 서



John Moody McCaleb(1861-1953)
 [출처: History of Missiology at Boston University]

흥리에서도 전도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931년 5월 22일 서흥리 주민들 가운데 남자 25명과 여자 6명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서흥교회가 개척되었다. 이들 가운데 장로 1명을 포함하여 장로교 교인이 총 4명이었고, 27명이 새신자들이었다. 새신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동석기의 조카였다. 동석기는 전날 토요일에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조카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였다. 침례식은 주일날 오후에 거행되었는데, 햇볕이 아름답게 내리쬐는 큰 도로가 강둑에는 침례식을 처음 보기 때문에 구경나온 마을 주민들이 매우 많았다. 동석기는 이들 회심자들을 대상으로 새벽과 저녁에 두 주간 동안 집중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개월 후에 예배당이 건축되었는데, 총 비용이 573달러 40센트가 소요되었고, 동석기 전도자가 301불 40센트를 보조하였다. 이 돈이 큰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930년대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받았던 급여는 월 15불 정도였고, 예배당 임대료가 대략 20불 정도였기 때문이다. 서흥교회의 포교소설치계가 제출된 것은 1938년 4월 4일이었다.

참고문헌

「조선총독부관보」 1938.6.21.; 「참빛」 2018.9-10(통권 369호):
<https://cafe.naver.com/kcukim/>; 『우리 교회의 반세기』(임학균,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1991); “S. K. Dong, 1881-1971”(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https://www.therestorationmovement.com/_states/california/dong.htm; *Missionary Messenger* 11, Nov.1933.

3) 수동 그리스도의 교회(水東 基督の教會)



수동 그리스도의 교회(1930년대)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수동리 1078의 3번지
 [출처: Church of Christ Mission Photography Collection]

수동 그리스도의 교회는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수동리 1078의 3번지에 소재하였다. '기독교회'(基督의教會) 포교관리자 동석기 전도자가 1932년 5월 22일 북청 고향에 세 번째로 설립한 교회였고, 이흥식 집사가 1947년 2월 21일 월남하기 전까지 평신도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겼다. 창립예배 때 함전 그리스도의 교회(1930년 11월 29일 설립)와 서흥 그리스도의 교회(1931년 5월 14일 설립)

성도들이 참석하여 합동으로 예배를 드렸고, 침례식도 거행하였다. 이날 함전교회에서 12명, 서흥교회에서 4명, 총 16명이 침례를 받았다. 수동교회에 두 명의 공립학교 교사들이 정기적

으로 출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부인이외에 첩을 두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성경공부 때 집사나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첩을 둔 교사들을 비난하자 그들은 교회를 떠났다. 수동교회의 포교소설치계가 제출된 것은 1938년 4월 4일이었다.



수동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 건축(1930년대)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수동리 1078의 3번지
 [출처: Church of Christ Mission Photography Collection]

참고문헌

「조선총독부관보」 1938.5.30.; 1938.6.21.; 「참빛」 1991.1-2(통권 204호); 「참빛」 2018.9-10(통권 369호): <https://cafe.naver.com/kcukim/>; 『우리 교회의 반세기사』(임학균,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1991);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사: 1930-1968』(김세복, 참빛사, 1969); *Gospel Advocate* 77, Jan.3.1935; “S. K. Dong, 1881-1971”(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https://www.therestorationmovement.com/_states/california/dong.htm; “Church of Christ Mission Photography Collection”: https://digitalcommons.acu.edu/coc_missions_photos/.

4) 빙애 그리스도의 교회(氷崖 基督の教會)

빙애 그리스도의 교회는 임자동 그리스도의 교회로도 불렸으며, 함경남도 북청군 하거서면 임자동리 108번지에 소재하였다. ‘기독교교회’(基督의教會) 포교관리자 동석기 전도자가 매주일 임자동리를 방문하여 설교하였다. 그 결과 남자 12명과 여자 12명이 침례를 받았고, 1936년 10월 11일 네 번째 교회가 설립되었다. 빙애교회의 포교소설치계가 제출된 것은 1938년 4월 4일이었다.

참고문헌

「조선총독부관보」 1938.6.21.; 「참빛」 2018.9-10(통권 369호): <https://cafe.naver.com/kcukim/>; 『우리 교회의 반세기사』(임학균,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1991);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사: 1930-1968』(김세복, 참빛사, 1969); *Christian Standard* 72, Jan.1937; “S. K. Dong, 1881-1971”(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https://www.therestorationmovement.com/_states/california/dong.htm.

5) 만경 그리스도의 교회(萬景 基督の教會)

만경 그리스도의 교회는 함경남도 북청군 하거서면 임자동리 1165번지에 소재하였다. ‘기독교교회’(基督의教會) 포교관리자 동석기 전도자가 북청에 다섯 번째로 설립한 교회였다. 만경교회의 포교소설치계가 제출된 것은 1938년 4월 4일이었다.

참고문헌

「조선총독부관보」 1938.6.21.; 「참빛」 2018.9-10(통권 369호):

<https://cafe.naver.com/kcukim/>; 『우리 교회의 반세기사』(임학균,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1991); “S. K. Dong, 1881-1971”(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https://www.therestorationmovement.com/_states/california/dong.htm.

6) 죽평 그리스도의 교회(竹坪 基督の教會)



죽평 그리스도의 교회 침례식(1938년 10월 9일)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 죽평리 603번지

양문석 포함 남자 13명, 여자 10명이 동석기 전도자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출처: Church of Christ Mission Photography Collection]

였고, 이 보다 서너 달 앞선 4월 4일에 다섯 개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개설되었기 때문이다. 양석문은 1938년 10월 9일 동석기로부터 침례를 받고 평신도 목회자로 이 교회를 맡아 돌보던 중 1941년에 모친이 장사를 하려고 매입한 가정집을 개조하여 예배당을 마련하였다. 죽평 교회를 섬겼던 양석문은 다음과 같이 회고 하였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따로 없었습니다. 북청 교회들엔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당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기성 교회들이 생명력 없이 시름시름 앓는 데 반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생명력이 넘쳐났지요.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순수성과 열정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강요도 어떤 구속도 받지 않는 오늘의 한국교회가 뜻뜻미지근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옛날 동석기 전도자님 계시던 그 북청교회가 그림습니다.”

죽평 그리스도의 교회는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 죽평리 603번지에 소재하였다. ‘기독교교회’(基督の教會) 포교관리자 동석기 전도자가 고향 북청에 여섯 번째로 설립한 교회였고, 양석문 전도자가 흥남철수 때까지 평신도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겼다. 죽평교회는 1938년 4월과 7월 사이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죽평교회의 포교소설치계가 1938년 7월 27일에 개설되었다.



죽평 그리스도의 교회 침례식(1941년 2월경)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 죽평리 603번지

남자 3명, 여자 7명이 동석기 전도자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왼쪽에 양복을 입은 사람이 양석문 전도자이다.

[출처: 그리스도의 교회 제2권 2쇄]

참고문헌

「조선총독부관보」 1938.9.3.: 1938.9.28: ‘동석기 전도자와 그리스도의 교회’(이준행, <http://kccs.pe.kr/rmp043.htm>); ‘그리스도의교회」2호 (<http://thechurch.kr/magazines/8559>); 「초기 지도자 동석기 전도자」(그리스도의교회_목회자_서재룡-역사교실, <http://cochrist.kr/bbs/bbsList/63>); 『그리스도의 교회』(제2권 2쇄): “Church of Christ Mission Photography Collection”:

https://digitalcommons.acu.edu/coc_missions_photos/.

7) 수서 그리스도의 교회 (水西 基督の教會)

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수서리 607번지에 소재하였다. 평신도였던 이봉상이 출석교인 60~70명 정도였던 수서교회를 목회자로 섬겼다. '기독교교회'(基督の教會) 포교관리자 동석기 전도자는 북한에서의 마지막 보고서를 "코리아 바운드, 三岐 北西"(Korea Bound, Sanki Hoksei)란 제목으로 1940년 11월 20일 영문으로 작성한 바가 있다. 이 글에서 동석기는 수서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전하면서 청년 이봉산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이봉산은 수서교회가 개설한 성경 훈련반에 출석한 첫 번째 청년이었다. 그는 한때 성결교회의 교인이었지만 4년 정도 교회를 떠났던 자였다. 그러던 이봉산이 성경 훈련반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였고, 말과 행실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변화된 그의 삶과 행동을 보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였고, 기도 모임을 시작하였다. 모임은 점차 커졌고 장소(주택)가 협소하여 예배당을 짓기로 하였다. 교인들은 가난했지만, 최선을 다하여 건축비를 모았고, 동석기 전도자도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할 돈을 기부하였다. 성도들은 자력으로 합심하여 작은 예배당을 완공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서리 출신인 이남원(글렌데일 그리스도의 교회 장로)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수서리(귀미단)에는 상촌, 중촌, 하촌 세 개 부락이 있었는데, 하촌에 평창 이씨가 10퍼센트 정도 살고 있었고, 중촌에는 조씨와 방씨를 합쳐서 45세대 내지 50세대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상촌에는 평창 이씨가 35세대 살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상촌에서 10여 가구, 중촌에서 10여 가구, 하촌에서 20여 가구에서 대략 60-70여명이 교회에 출석을 하였다. 교인들 중에는 조씨와 방씨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씨들이었다. 이씨들은 전부 친척이었으므로 가족이나 다름이 없어서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자유롭게 앉아 예배를 드렸고 예배당 건축에도 자기 집 일처럼 나서서 도왔던 것이다. 수서교회의 포교소설치계가 개설된 것은 1940년 11월 10일이었다.

참고문헌

「조선총독부관보」 1941.1.30.; 1941.2.1.; 「참빛」 2018.9-10(통권 369호): <https://cafe.naver.com/kcukim/>; 『우리 교회의 반세기』(임학균,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1991); "S. K. Dong, 1881-1971"(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https://www.therestorationmovement.com/_states/california/dong.htm.

III. 평안북도 지역 그리스도의 교회들(基督敎會)

1. 구성군, 정주군, 신의주, 중화군 지역 그리스도의 교회(基督敎會) 사역자들

1) 이원균 목사(1887-1969.12.06.)

이원균 목사는 1887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출생했다. 이원균은 어려서 한학을 공부했다. 청년기에 기독교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이원균은 경성성서학원 중퇴자로서 38살 무렵에 도쿄에서 요츠야선교부(Yotsuya Mission)의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선교사를 만나 알게 되었다. 이 무렵 이원균은 세 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이원균은 선교부로부터 파송받아 1924년 10월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기지(포교소)에 부임하여 1927년 초까지 사역하다가 경성성서학원에 복학하기 위해서 사임하였다. 동양선교회로부터 이원균의



이원균 목사(1887-1969.12.06)
평북 구성군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
[출처: Tokyo Christian]

포교담임자변경계가 1927년 11월 3일 제출되고, 포교폐지계가 1928년 5월 1일 제출된 것으로 보아 이원균은 1927년 전반기까지 동양선교회 김천성결교회(경상북도 김천군 김천면 남산정 34의 8번지)에서 목회하다가 사임하고, 1927년 가을학기에 경성성서학원에 복학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츠야선교부는 이원균이 신학공부를 마칠 때까지 후원을 지속하였다. 1932년 8월 요츠야선교부 산하 심천조선인기독교교회(후카가와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회자 이인범이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에서 두 달간 체류하는 동안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방현교회와 인근 교회들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해에 장로교회였던 방현교회가 도쿄 요츠야선교부에 목회자 파송을 요청하였다. 이에 선교부는 1933년 초 이원균을 담임목사로 파송하였다. 이후 이원균은

1937년 5월에 자녀교육을 위해서 요츠야선교부 산하 삼하도조선인기독교교회(미카와시마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4년 반 동안 수많은 부흥집회들에서 설교하였고,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으며, 구성군에 방현교회, 오봉교회, 평지동교회, 정주군에 용포동교회, 문인동교회, 약수포교회, 근담동교회, 평남 중화군 동두면 대류리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들로 자리를 잡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방현교회의 장로들 중에 채(혹은 최)씨 성을 가진 내과의사가 두 명 있었다. 부자지간이었는데, 아들인 채(Dr. R. R. Cheh) 장로가 선교부에 서신을 보내 이원균 목사에 대한 만족감과 감사를 표시하였다. 또 원로장로 채(Y. D. Cheh) 의사는 이원균의 활동에 고무되어 선교사가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원균 목사의 사례비는 교회와 선교부가 반반씩 부담하였다. 또 선교부는 이원균의 목회반경이 30킬로미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전거를 선물하였다. 참고로 '기독교교회'(基督の教會)의 포교관리자 동석기 전도자는 귀국할 때 미국에서 자전거를 사서 국내에 반입시켰



이원균 목사(1934년 12월 13일)
(도쿄 요츠야선교부가 선물한 자전거)
[출처: Tokyo Christian]

다. 이원균 목사는 1937년 5월부터 태평양전쟁발발 때까지 도쿄 삼하도(미카와시마)조선인기독교교회에서 사역하였다. 요츠야선교부의 자랑스런 일군이었던 이원균은, 그러나, 1941년 1월 21일 교역자회의에서 일본인 목회자들 4명과 심천(후카가와)조선인기독교교회의 이성영 목사와 함께 선교사들과 몇몇 일본인 목사들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기독교단'에 가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해외로부터의 선교지원을 금지한 새로운 종교법의 시행을 두 달 정도 앞두고 있었고,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해방 후 이원균 목사는 평양신학교 이사장과 예수교 장로회 함남 노회장을 역임하였다. 1955년 침례교단에 가입하여 부산 충무로침례교회를 담임하였고, 침례교 총회에서 두 차례 교육부장을 역임하였으며, 70대 중반인 1962년부터 대한침례교신학교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79세 때인 1966년에는 신학교 교장으로 봉직하였다. 이원균 목사는 1969년 12월 6일 82세에

별세하였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Apr.1933; Jun.1933; Jul.1933; Oct.1933; Nov.1933; Dec.1933; Feb.1934; Jun.1934; Oct.1934; Nov.1934; Jan.1935; Feb.1935; Oct.1935; Feb.1936; Dec.1936; Jan.1937; Apr.1941; 『조선총독부관보』 1928.1.12.; 1928.7.5.; 『한국침례교 인물사』(김갑수, 요단출판사, 2007);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6: <http://kccs.info/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쿼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2) 윤형구 집사



윤형구 집사(1935년)
평북 정주군 고안(현)면 용포동 그리스도의 교회 [출처: Tokyo Christian]

윤형구 집사는 평안북도 정주군 고안면 용포동의 루디아(Lydia)였다. 윤형구는 과부로서 마을 언덕에 세워진 용포동 그리스도의 교회의 발전에 크게 헌신한 기둥이었다. 윤형구는 1934년에 집 근처 큰 부지를 교회에 기증하여 예배당이 건축되도록 하였고, 추수감사절에는 170엔을 헌금하였다. 요츠야선교부가 제작하여 배포한 1936년 달력에 윤형구 집사의 경건한 모습이 담겼다. 이 달력은 천안 독립기념관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 1936년 6월 24일 밤으로 남편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을 떠나 보낸 에밀리 커닝햄(Emily Boyd Cunningham)은 이듬해인 1937년 3월말에 에디스 쉼멜(Edith Shimmel) 선교사를 대동하여 숙식과 교통과 같은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직접 한국교회들의 순방에 나섰고, 4월 초 구성군과 정주군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였다. 에밀리 커닝햄 선교사는 그때 용포동교회에서 겪었던 일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린 후 주변 교회들을 순차적으로 순방하려했지만, 교통수단과 도로사정에 일기까지 받쳐주지 않았다. 4월 초인데도 눈이 내려서 길이 미끄럽고 진흙탕이었다. 결국 오봉 그리스도의 교회의 담임목사와 집사들이 20여리(6마일)가 넘는 눈길을 걸어서 유기를 선물로 들고 방문해 주었다. 이번에는 방현(Hoken)에서 버스를 타고 용포동에 가려했으나 두 번이나 버스가 만원이어서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자 용포동 그리스도의 교회 집사이자 버스노선 주인이 택시를 대절하여 가지고 와서 용포동교회를 방문할 수 있게 해주었다. 택시에서 내려 예배당까지 가는 길이 질퍽거리는 자갈길이어서 용포교회가 가마를 가져왔으나 커닝햄 부인은 타기를 거절하였다. 용포동에서는 윤형구 과부집사의 집에 머물렀다. 교회는 윤형구의 집에서 가까운 언덕에 있었다. 많은 교인들이 우리 일행이 도착하는 것을 보기 위해 언덕으로 나와 섰는데, 밝은 파스텔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짙은 녹색 소나무를 배경으로 선 여성들의 모습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교회에 건축 부지를 기증한 나이든 윤형구 과부집사가 나와서 진심으로 맞아주었고, 자신의 허름한 집안으로 인도하였다.

윤형구는 약간의 재산이 있었지만, 긴 단칸방에 부엌이 딸린 허름한 집에 살면서 경건한 삶을 영위하였고 교회를 위해 재물과 시간을 바쳐 봉사하였다. 저녁에 예배당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작은 예배당의 안쪽에 가득 찼다.... 우리는 아마도 용포동을 방문한 유일한 외국 여성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호기심을 보였다. 우리가 머물렀던 윤형구의 집에는 길쭉한 방 하나뿐이었다. 우리가 머물던 날 밤에는 하얀 모슬린 커튼으로 방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우리는 한 쪽을 차지했고 다른 쪽에는 젊은 여성과 나이든 여성 여러 명이 차지했다. 그들은 호기심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커튼을 젖히고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기로 했고, 둘 다 책을 들고 앉아 그들이 커튼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지만, 간간히 머리가 나타나서 침멜 양은 한쪽 끝에서, 나는 다른 쪽 끝에서 커튼을 닫고 있었는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커튼 아래로 들여다보는 여성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거의 웃음이 터져버릴 뻔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Feb.1935; Jun.1935; Jun.1937; 「조선총독부관보」1937.6.18;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6: <http://kccs.info/>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 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3) 장신주(張信籌) 목사



장신주 목사(1936년)
평북 구성군 오봉 그리스도의 교회
[출처: Tokyo Christian]

장신주 목사는 본래 이름이 장신두였으나 오봉 그리스도의 교회(평안북도 구성군 오봉면 인봉동)에 담임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장신주로 개명하였다. 장신주는 오봉교회와 평지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동시에 섬겼다. 요츠야선교부가 급여로 8불 50센트를 보조하였다. 오봉교회는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이원균 목사)의 선교기지(포교소)로 출발하여, 1933년에 부지매입, 1934년에 건축, 1935년 4월에 추가로 부지확보가 이뤄진 교회였다. 장신주 목사(평안북도 구성군 오봉면 인봉동 125번지)의 포교계와 오봉교회의 포교소설치계는 1937년 5월 10일 개설되었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Oct.1933; Jun.1934; Jun.1935; Nov.1935; Sep.1937; Apr.1939; 「조선총독부관보」1937.6.2;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6: <http://kccs.info/>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 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4) 최성진(崔成珍) 장로(1875-미상)



평북 구성군 방현그리스도의 교회 장로 최성진(1937년). 평북 정주군 용포동교회 및 문인동교회를 동시에 목회자로 섬겼다. [출처: Tokyo Christian]

최성진(崔成珍) 장로는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면 소재지에 살았으며 그곳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였다가 정주군의 용포동 그리스도의 교회와 문인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목회자로 동시에 섬겼다. 최성진은 제과업자(菓子職)였다. 최성진은 45세 때인 1919년 3월 7일 최예락(崔禮洛)으로부터 경성민회가 보내온 독립선언서 500매, 주의서(主意書) 500매, 관련서류 및 깃발을 전달받아 양인항(梁仁恒)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기를 만들었으며, 11일 구성군 남시(南市)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최성진은 11일 오후 2시경 최예락, 양인항, 안승열(安承悅), 홍양천(洪陽天) 등이 시장 중앙에 태극기를 높이 달고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주도하는 동안 선언서와 주의서를 배포하였다. 이때 남시에 모여 만세를 외친 사람이 1,000여 명이었다. 이날 최성진은 일본 헌병들의 발포로 어깨뼈가 부서졌다. 최성진은 체포되어 동년 7월 10일 고등법원에서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언도받았다. 정부는 최성진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으나 남북분단으로 인해 전달되지 못하여 '독립유공포상자 중 훈장 미전수자 명단'에 올라있다. 최성진(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와룡동 427번지)의 포교계와 문인동교회(평안북도 정주군 옥천면 문인동 510번지)와 용포동교회(평안북도 정주군 고안면 용포동 170번지)의 포교소설치계는 1937년 5월 12일 개설되었다. 최성진은 도쿄 요츠야선교부로부터 매달 8불 50센트를 보조받았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Jul.1937; Sep.1937; Apr.1939; 『조선총독부관보』 1937.6.18.; 공훈전자자료관 및 독립운동판결문(최성진);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6: <http://kccs.info/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5) 김성산 목사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의 담임목사 이원균이 자녀교육 때문에 도쿄 삼하도조선인기독교회(미카와시마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로 자리를 옮겨 감에 따라 48세였던 김성산 목사가 1937년 4월 방현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김성산 목사(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259번지)의 포교계는 1937년 5월 10일 개



김성산 목사(1937년) 평북 구성군 방현그리스도의교회 목회자 [출처: Tokyo Christian]

출되었다. 방현교회의 포교소설치계가 제출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교회주소를 알 수는 없지만, 방현교회가 면소재지에 유치원과 사택까지 갖춘 조직교회였으므로 김성산의 주소지인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259번지'에 교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Jan.1937; Jun.1937; 「조선총독부관보」1937.6.2.;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6: [http://kccs.info/조선총독부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pdf](http://kccs.info/조선총독부기록으로본한국그리스도의교회.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6) 주정국 목사



주정국 목사(1938년)
평북 구성군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
[출처: Tokyo Christ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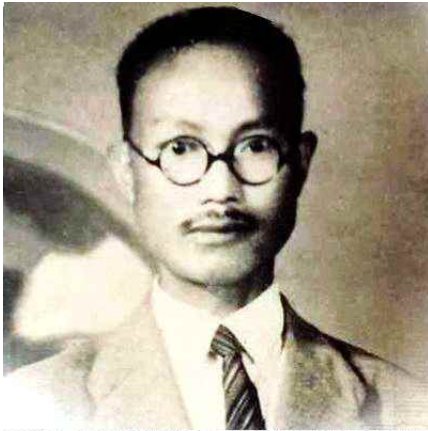
주정국 목사는 이인범의 신학(경성성서학원) 동기로서 도쿄 심천조선인기독교교회(후카가와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인범, 채호에 이어 1935년 초 제3대 목사로 부임할 당시에 49살이었고, 부인과 외아들을 두고 있었다. 주정국은 1938년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에 파송될 당시 목회경력 20년차였다. 1919년 10월 14일 동양선교회(성결교회)로부터 포교계(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동항리 34)가 제출되었고, 1928년 6월 13일 포교폐지계(조치원성결교회 및 부강성결교회)가 제출되었다. 주정국은 도쿄 심천조선인기독교교회에서 목회하던 중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는데, 도쿄로 돌아온 직후 신의주에 교회를 개척할 의향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주정국은 1937년에 평안북도 신의주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겨갔다가 김성산 목사가 방현교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자 1938년에 방현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주정국은 1938년 8월에 방현교회에서 특별집회를 개최하여 많은 수의 결신자들을 만들었고, 9월에는 서울에서 신의주 그리스도의 교회 개척을 위한 모금도 진행하였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Apr.1935; May.1937; Dec.1937; Apr.1938; Nov.1938; 「조선총독부관보」1919.10.14.; 1928.7.5.;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6: [http://kccs.info/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pdf](http://kccs.info/조선총독부기록으로본한국그리스도의교회.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7) 최상현(崔相鉉, 1891.12.27.-1950.08 공산군에 피랍) 목사

최상현은 1891년 12월 27일 평안남도 용강군의 항구 마을인 신녕면에서 아버지 최치홍(崔致



최상현 목사(1891.12.27-1950.08 공산군에 피랍)
[출처: 최상현 목사의 사상과 신학]

鴻)의 아들로 출생했다. 호는 청송(靑松)이었다. 최상현은 진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한학을 공부하였고, 진남포의 삼숭학교(三崇學校)를 다녔다. 일제에 재산을 몰수당하여 형편이 어려웠는데도 1907년 평양 송실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최상현을 뛰어난 목사와 문인과 독립지사로 만든 것은 평양과 송실중학교였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일본 주재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선교사들인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도쿄)과 M. B. 매든(Madden, 오사카)이 평양을 방문한 때가 바로 대부흥운동이 절정으로 치달던 때였다. 1907년 1월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동년 6월까지 절정에 달하였는데, 그 운동 중간

기에 커닝햄과 매든은 평양의 한 집회에서 1,200여명이 일제히 그러나 일사분란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 후로 커닝햄에게 한국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행 16:9)는 동양의 마케도니아가 되었다. 1907년은 최상현의 삶에서도 중요한 해였다. 최상현은 1907년에 평양송실중학교에 입학했고, 평양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회심 체험을 하였으며, 훗날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위해 헌신할 목회자로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상현이 회심체험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평양대부흥운동과 송실중학교의 기독교적인 분위기 때문이었다. 최상현은 「목사가 되려고」란 글에서 송실중학교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이 학교는 교회에서 경영함으로 매일 아침 학과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30분 간씩 기도회가 있었고 매일 공부하는 과목 중에는 성경이 주요한 과정이 되어 날마다 성경 한 장씩 외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 그뿐 아니라 주일을 당하면 각 학생은 예배에 참석할 의무가 있었고, 한 학기에 한 번씩은 부흥회가 있었다.” 이뿐 아니라, 송실중학교는 평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운동집회에 학생들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휴교까지 하였다. 그 때의 일을 최상현은 「진리를 찾아서(1)」라는 글에서 “선생님 몇 분, 학생들, 그리고 나는 낮과 밤에 모여서 우리들 스스로 기도에 완전히 열중하다가 거의 식사를 하는 것도 잊었다”고 회고하였다. 최상현은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회심 체험을 하였고, 본격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였으며, 이미 이때 ‘목사’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하였다. 송실중학교는 1902년 10월 1일부터 근로장학사업을 위한 기계창인 안나공업소를 완공하고 목공실, 인쇄실, 철공실, 주물실을 설치하여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최상현은 일제에 재산을 몰수당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벌기 위해서 방과 후 안나공업소에서 일을 하였다. 최상현은 이때의 일을 「진리를 찾아서(1)」에서 회고하기를 “눈에서는 피 눈물이 흘렀고, 손에서는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다”고 하였다. 최상현은 거리로 나가 엿을 팔기도 하였는데, 그에게 엿장수라며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최상현은 성경을 읽으며 자신을 다스렸다. 최상현은 성경을 통해서 역경을 이길 힘과 지혜를 부여받았다. 그런 이유로 최상현은 수업에 늦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은 꼭 한 장씩 읽었다. 최상현은 1912년 6월 11일 송실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최상현은 졸업식연설에서 자신은 목사가 되겠다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YMCA학생 청년조직에 참여하여 중추적인 활동을 하였다. 최상현은 상경하여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여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였다. 최상현은 연희전문학교 문과 제1회 졸업식을 20여일 앞둔 1919년 3·1만세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해외로 발송하는 일을 맡았다. 최상현은 졸업 후 동대문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여 1년간 시무하면서,

木浦	宣川	順天	三陟	洪城	新羅	鳳山	州城	金海	群山	地名
吳錫均	姜基一	李觀景	金源大	柳雨秀	宋濟元	甲養暖	許鏞	金聲哲	李靈煥	代表者名
		田孝成	金夏卿	金在鎬		安斗愛	金澄柱	張昌鎰	朴相玉	代表者名
靈洞	仁川	石橋	仁寺洞	尚洞	宋橋	勝洞	貞洞	東大門	批地名	代表者名
辛永默	申鉉大	趙鎮萬	金漢泳	尹福榮	洪東璇	洪東德	盧俊鐸	崔相鎰	金聖俊	代表者名
	姜天錫	金相滿	趙誌鎬	尹炳宜	金應集	尹權	金成鎬	李淳鏞		代表者名

1085
 야소교청년연합회 출석단체 및 대표자 명단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1921년 5월 7일)
 [출처: 공훈전자사료관]

연희전문학교 조교수와 동창회 회장직을 겸임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에 최상현은 독립선언서를 영역한 건(件)으로 체포되어 얼마간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후, 중국에 망명(亡命)하던 중 연경대학교에서 잠시 수학하였으며, 미국으로 가려다가 실패하여 귀국하였다. 그리고 나서 최상현은 1921년 3월 동아일보에 『인물평정(人物評定)의 표준론(標準論)』을 연재하면서 문필활동을 시작하였고, 야소교청년연합회 간사 및 동대문지역 대표를 맡아 활동하였다. 최상현은 송실중학교를 졸업할 당시에 이미 목사가 되고자했기 때문에 협성신학교(현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입학하였고, 학창시절에 3권으로 된 『세계 위인전』을 펴내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1922년 4월 「신학세계」의 편집을 맡으면서 신앙 및 역사 교양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또 최상현은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영데이」(Young Day)를 시작하였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최상현은 1920년대

에 전영택(田榮澤), 임영빈(林英彬), 방인근(方仁根), 이은상(李殷相) 등과 함께 기독교문학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다. 최상현은 협성신학교를 졸업 후 1929년 본처사역자로 미국 감리회 조선연회에서 집사목사 안수를 받았다. 1937년부터 1950년 공산군에 피랍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회자로 헌신하였다.

참고문헌

「목사가 되려고」(최상현); 「진리를 찾아서」(최상현); 공훈전자사료관(『耶蘇教靑年聯合會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6: <http://kccs.info/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pdf>); 『최상현 목사의 사상과 신학』(이은대, 쿠파출판사, 2007);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쿠파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2. 구성군, 정주군, 신의주, 중화군 지역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

1) 이인범 목사

이인범 목사는 황해도 곡산사람으로서 1917년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여 김상준 목사 밑에서 배웠으며, 1920년에 졸업하였다. 졸업 직후 경안교회(경기도 광주군)에 부임하였고 동년에 무교정교회(서울)에 부임하였다가 1921년에 다시 북정교회(북옥, 충남 논산군 강경면)에 부임하였다. 1924년에는 동막교회(경기도 고양군 용강면)로 전근되었다가 1926년에 면직된 후 일본에 건너가 도쿄 요츠야선교부 산하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헌신하였다. 1927년 8-9월경에 요츠야선교부 산하 삼하도조선인기독교교회(미카와시마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기지에



이인범 목사(1896.09.25.-1951)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
[출처: Tokyo Christian]

투입되었고,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선교사에게 크게 신임을 얻어 1929년 11월부터 1933년 8월까지 근 4년간 심천조선인기독교교회(후카가와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제1대 담임자로 섬겼으며, 1933년 9월부터 1943년 9월까지 만10년 동안(합법적으로는 7년 8개월간)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책임자로 섬겼다. 이인범은 1932년 8월 요츠야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에 두 달간 체류하면서 평북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방현교회와 인근 교회들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으로써 북한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시작되게 하였다. 이인범은 1932년 8월 21일(주일) 하루에만 방현교회에서 4명의 장로와 12명의 집사를 포함하여 총 93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그는 이때의 부흥집회들에서 총 3개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였다. 이인범은 전임 포교관리자 성낙소 목사가 1932년 6월 11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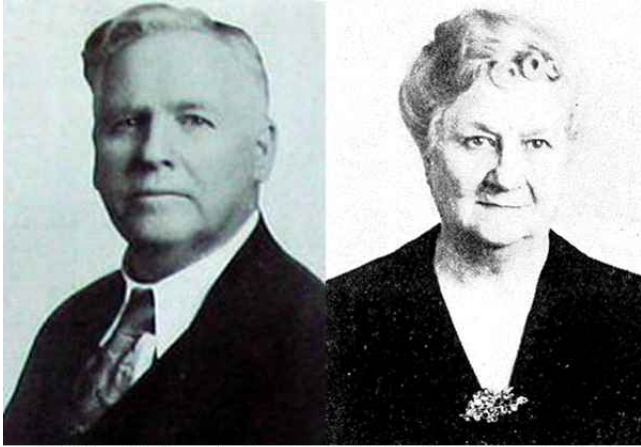
사회과에 제출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교파명을 1936년 7월 8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교파명변경계를 제출하였으며, 1943년 9월 17일까지 포교관리자로 헌신하는 동안 신사참배 및 일본기독교조선교단 가입에 반대하였다. 그로 인해서 이인범은 심한 고초를 겪었고, 결국 포교폐지를 당하였다. 이인범의 포교폐지계는 1943년 9월 30일 제출되었다. 이인범은 1949년 1월 3일 금산제일장로교회(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부임하여 시무하다가 1951년에 별세하였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Aug.1932; Feb.1933; Jan.1935; Jun.1935; 『조선총독부』1920.7.3.; 1921.6.7.; 1924.11.12.; 1925.4.9.; 1927.5.27.; 1936.3.18.; 1936.8.21.; 1943.10.30.;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오수강,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2007);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약사』(이명직, 1929);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6: <http://kccs.info/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2)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1864.7.19.-1936.6.24.)과 에밀리 커닝햄(Emily Boyd Cunningham, 1873.02.20.-1953.12.25.) 부부,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선교사 부부는 1901년 10월 1일 일본에 도착하여 도쿄에서 1902년 선임 선교사들로부터 요츠야선교부를 인수받아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커닝햄은 M. B. 매든(M. B. Madden)과 함께 1907년 평양을 방문하여 1,200명의 교인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부흥회를 목도하고 큰 감동을 받아 한국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우겠다는 결심을 했다. 1923년부터 도쿄 미카와시마, 도쿄 후카와가 및 요코하마에 조선인기독교교회들(한인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지원하였다. 1924년 3월 25일 서울에 선교기지를 마련



William D. Cunningham (1864.07.19.-1936.06.24)
Emily Boyd Cunningham (1873.02.20-1953.12.25)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개척자, 도쿄 요츠야선교부 대표 선교사
 [출처: Tokyo Christian]

하였으며, 다수의 사역자들을 파송하고 지원하였다. 1932년 8월 선교부 산하 심천조선인기독교교회(후카가와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담임목사 이인범을 지원하여 한국에서 두 달간 체류하는 동안 평북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방현교회와 인근 교회들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게 함으로써 북한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였다. 그리고 1933년 초 이원균 목사를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교회에 파송하였으며, 오봉교회, 평지동교회, 정주군에 용포동교회, 문인동교회, 약수포교회, 근담동교회, 신의주교회 및 평안남도 중화군 동두면 대류리교회를 지원하였다. 커닝햄은 한국을 총 다섯 번 방문하였는데, 1935년 4월과 1936년 3월에도 한국을 방문하여 평안북도 구성군과 정주군의 교회들을 시찰하였다. 1936년 4월에 한국시찰을 마친 직후 미국에서 6월 24일 암으로 별세하였다. 부인 에밀리 보이드 커닝햄(Emily Boyd Cunningham)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 이듬해인 1937년 3월말에 에디스 쉘멜(Edith Shimmel) 선교사를 대동하여 숙식과 교통과 같은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직접 한국교회들의 순방에 나섰다. 4월 초 구성군과 정주군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였다. 요츠야선교부 책임자로서 에밀리 커닝햄은 1941년 4월 1일부터 선교사들의 입국활동이나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자, 오웬 스틸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매월 주던 보조금을 1941년 초에 한해 치를 몰아서 한몫에 지원토록 하였는데, 지급된 돈은 커닝햄기념기금(The Cunningham Memorial Fund)이었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1901-1941; Nov.1917; Mar.1924; Jun.1924; Feb.1935; Jun.1935; Jun.1937; Feb.1941;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쿰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Thomas G. Hitch
 1936년부터 39년까지 도쿄 요츠야선교부 산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섬겼으며, 마지막 2년간은 서울에 거주하였다.
 [출처: Tokyo Christian]

3) 토마스 히치(Thomas G. Hitch)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

토마스 히치(Thomas G. Hitch) 선교사는 1936년 3월 3일 일본에 도착했고, 도착 직후 3월 19일부터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과 함께 평안북도 구성군과 정주군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시찰하고 지원하였다. 커닝햄이 그해 6월 24일 미국순방 중에 사망하자, 히치는 1936년 10월 한국을 재차 방문하여 교회들을 시찰하고 지원하였다. 1938년 2월부터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 상주하면서 서울 아현동에서 성서훈련학교(Bible Training

School)를 운영하였고, 5월과 7월에도 구성군과 정주군의 교회들을 시찰하였다. 히치는 티베트 국경지대에서 선교사역할 때에 아들과 딸을 잃었는데, 그 때 받은 충격으로 신경쇠약증에 걸려 고생하였다. 히치는 한국에서의 사역이 너무 과중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견디지 못하고 1939년 8월말에 가족과 함께 영구 귀국하였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Feb.1936; Apr.1936; Jan.1937; Jan.1938; Feb.1938; Mar.1938; Apr.1938; May.1938; Jul.1938; Aug.1938; Dec.1938; Feb.1939; Apr.1939; Sep.1939;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4) 오웬 스틸(Owen Still, 1892.12.3.-1973.7.12.)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



Owen Still
1939년부터 41년까지 도쿄 요츠야선교부 산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섬겼다.
[출처: Tokyo Christian]

오웬 스틸(Owen Still) 선교사는 1937년 10월 24일 가족과 함께 일본에 도착하여 요츠야선교부 책임자 에밀리 커닝햄(Emily Boyd Cunningham) 선교사의 사역을 보조했다. 스틸은 1939년 봄 토마스 히치(Thomas G. Hitch)의 사역을 돕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평안북도 구성군과 정주군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순방하며 사역들을 시찰하였다. 스틸은 1939년과 1940년에도 각각 두 차례씩 한국의 교회들을 순찰하였다. 스틸은 1941년 초 일본에서 일어난 변화(종교단체법과 교회합동)로 인해,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의 복음사역 지원이 3월 이후 끝나는 것에 대비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틸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매월 주던 보조금을 요츠야선교부가 1941년 초에 한해 치를 몰아서 한몫에 지원토록 하였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Nov.1937; Dec.1937; Jan.1938; Mar.1938; May.1938; Jul.1938; May.1939; Nov.1939; Dec.1939; Jan.1940; Aug.1940; Sep.1940; Nov.1940; Dec.1940; Feb.1941; May.1941;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3. 구성군, 정주군, 신의주, 중화군 지역 그리스도의 교회들(基督敎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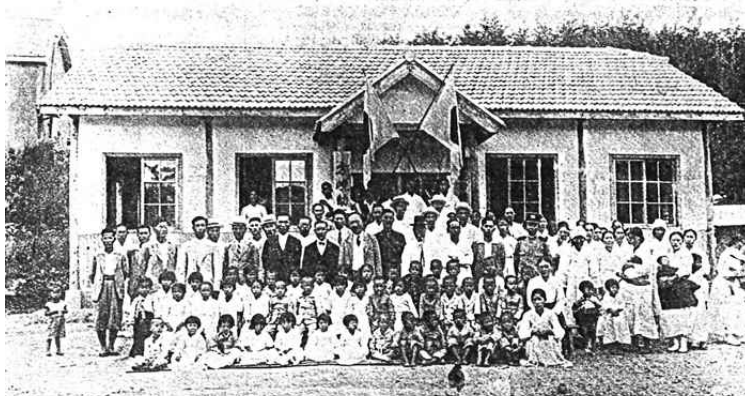
1) 방현(芳峴) 그리스도의 교회(基督敎會)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는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면소재지에 있었다. 본래 장로교회였으나 일제강점기 때 방현면에서 계출된 교회는 없었다. 한국 성결교회 창시자의 한 사람인 김



평북 구성군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1935년) [출처: Tokyo Christian]

천조선인기독교교회(후카가와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담임목사 이인범과 함께 귀국 후 초교파 운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한국의 지인들과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 피력하였는데, 방현교회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이인범이 1932년 8월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에서 두 달간 부흥집회들을 인도하였다. 그리고 이인범은 8월 21일 주일날 방현교회에서 설교하였고, 이날 4명의 장로와 12명의 집사를 포함하여 총 93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그 즉시로 방현교회는 도쿄 요츠야선교부에 목회자 파송을 요청하였고, 선교부는 이듬해인 1933년 초에 이원균을 방현교회에 파송하였다. 방현교회는 교인 170여명, 장로 3명, 집사 10여명 안팎의 조직교회로서 부교역자(Y. S. Kim)와 여전도사 및 등록아동 50여명의 유치원과 목사 사택이 있었다. 장로들 가운데 두 명은 의사들이었다. 이들은 부자지간으로서 원로장로(Dr. Y. D. Cheh)와 시무장로(Dr. R. R. Cheh)로 각각 교회를 섬겼다. 또 만세운동가이자 제과업자인 또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 유치원(1937년) 인원 50명 [출처: Tokyo Christian]

다른 장로 최성진은 나중에 정주군의 용포동 그리스도의 교회와 문인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목회자로 섬겼다. 의사 시무장로와 최성진 장로는 1933년에 매월 10엔을 교회에 헌금하고 있었다. 요츠야선교부가 담임목사 월급 절반에 해당하는 8불 50센트를 보조하였고 여전도사에게도 8불을 급여로 지불하였다. 그리고 여선교회가 부교역자의 급여를 책임졌다. 1939년 초 요츠야선교부 선교사들의 급여는 대략 50불 정도였다. 방현교회는 도쿄 요츠야선교부와의 제휴에 만족하였다. 원로장로(Dr. Y. D. Cheh)는 선교사들의 방문을 요청하였고, 시무장로(Dr. R. R. Cheh)는 이원균 목사에 대한 만족감과 감사서신을 보냈다. 이원균은 방현교회를 시무한 1933-37년 사이에 150여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선교부의 대표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은 조선총독부 총독(1919-27, 1929-31) 및 일본 정부 수상(1932-1934)을 지낸 사이토 마코토(齋藤 実) 자작 부부와 절친한 이웃이었다. 게다가 시무장로(R. R. Cheh)의 딸이 도쿄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었고, 1936년에 독일로 유학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에서는 방현(芳峴)을 '호켄'(Hoken)으로 적기도 했다. 1936년에 방현면 인구 3000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240명 정도였다.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절을 허물어

상준 목사(1933년 10월 12일 별세)가 도쿄 요츠야선교부 산하 삼하도조선인기독교교회(미카와시마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1931년 7월 1일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7월 20-30일 기간에 '재일조선기독교교회관동연합회 수양회'를 개최한바가 있었다. 이때 김상준은 황빈조선인기독교교회(요코하마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담임목사 성낙소와 심

다른 장로 최성진은 나중에 정주군의 용포동 그리스도의 교회와 문인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목회자로 섬겼다. 의사 시무장로와 최성진 장로는 1933년에 매월 10엔을 교회에 헌금하고 있었다. 요츠야선교부가 담임목사 월급 절반에 해당하는 8불 50센트를 보조하였고 여전도사에게도 8불을 급여로 지불하였



평북 구성군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1935년 4월 21일)
[출처: Tokyo Christian]

스 히치(Thomas G. Hitch), 에밀리 커닝햄(Emily Boyd Cunningham)과 에디스 쉴멜(Edith Shimmel), 오웬 스틸(Owen Still) 등이 이곳을 방문하였고, 1940년에 오웬 스틸이 방문하였을 때에는 체육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전 주민의 관심이 스틸에게 쏠림은 물론이고 일경의 눈초리까지 받아야 해서 자리를 피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이때의 충격을 오웬 스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방현을 방문했을 때 체육회가 열렸는데, 아이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일경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일경들이 의식을 큰 소리로 진행시켰는데, 체육회는 황국신민서사의 낭독과 제창 및 동방요배로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경찰까지도 백인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현장을 떠나야 했다. 방현은 4,000여명이 사는 면소재지였다.” 정(Jung T. S.) 목사가 이원균 목사를 도와 구성군의 교회들에서 부흥집회들을 인도하였고, 성경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래성과 순수성 및 그 능력을 회복하자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환원정신을 설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그의 가르침이 과연 성서적인지를 파악하려는 성경공부들이 이웃 교회들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원균 목사가



평북 구성군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1936년)
교인 173명, 장로 3명, 집사 7명. 토마스 히치(뒷줄 중앙), 이원균(히치 좌측), 김영배(동역, 히치 우측), 이인범(김영배 우측), Y. D. Cheh(우측 앞줄 양복차림, 장로, 내과의사), R. R. Cheh(Y. D.의 아들, 우측 뒷줄 양복차림, 장로, 내과의사) [출처: Tokyo Christian]

회를 섬겼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Aug.1932; Feb.1933; Apr.1933; Aug.1933; Dec.1933; Jun.1934; Oct.1934; Nov.1934; Jan.1935; Feb.1935; Mar.1935; Apr.1935; Jun.1935; Jul.1935; Feb.1936; Dec.1936; Jan.1937; Apr.1937; Jun.1937; Dec.1937; Apr.1938; Nov.1938;

그 재목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귀신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1939년과 1940년에 이곳을 방문한 선교사 오웬 스틸은 방현 인구를 4000명으로 진술하였다. 이곳은 외국인의 발길이 전혀 달지 않았던 외진 곳으로써 정주역에서 내려 버스로 25킬로미터 정도 가야하는 거리에 위치하였다. 윌리엄 커닝햄, 토마

성장한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동경 삼하도조선기독교교회로 자리를 옮겨감에 따라 48세의 김성산 목사가 1937년 4월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그러나 김성산 목사가 방현교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자 주정국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주정국 목사는 1938년 8월에 특별집회를 개최하였고, 많은 수의 결신자들을 만들었다. 또 이갑성이 심방전도사로 방현교

Apr.1939; Dec.1939; Sep.1940; Nov.1940;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오수강,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2007);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쿼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2) 구성군 오봉(五峰) 그리스도의 교회(基督敎會)



평북 구성군 오봉 그리스도의 교회
[출처: Tokyo Christian]

오봉 그리스도의 교회는 평안북도 구성군 오봉면 인봉동에 있었다. 1933년에 부지매입, 1934년에 건축, 1935년 4월에 추가로 건물과 부지확보가 이뤄졌다.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에서는 오봉(五峰)을 ‘고호’(Goho)로 적기도 했다. 1936년 1월 토마스 히치(Thomas G. Hitch) 선교사가 방문했을 당시에 교인이 50여명이었고, 박(K. E. Pak) 장로와 또 다른 장로가 1명 더 있었으나 교회에 오르간(풍금)이 없었다. 집회 때는 작은 예배당에 120여명이 모이기도 했다. 한 여



평북 구성군 오봉 그리스도의 교회(1934년 2월 24일)
[출처: Tokyo Christian]

신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금가락지를 빼서 바쳤고, 교회는 그 금가락지를 팔아 33엔(yen)의 수입을 얻었다. 1937년 5월 10일 장신주 목사(평안북도 구성군 오봉면 인봉동 125번지)의 포교계와 오봉교회의 포교소설치계가 개설되었으며 1938년 10월경에 목사사택이 완공되었다. 1940년에 서울 아현동 성서훈련학교(Bible Training School) 학생 이용섭이 장신주 목사의 후임으로 오봉교회와 평지동교회의 목회자로 부임하였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Oct.1933; Jun.1934; Jan.1935; Feb.1935; Jun.1935; Jul.1935; Nov.1935; Dec.1936; Sep.1937; Feb.1938; Nov.1938; Apr.1939; Dec.1939; Mar.1940; Nov.1940; 「조선총독부관보」 1937.6.2.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쿼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3) 구성군 평지동(坪地洞) 그리스도의 교회(基督敎會)

평지동 그리스도의 교회는 평북 구성군 서산면 평지동에 있었다.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에서는 평지동(坪地洞)을 ‘헤이지도’(Heijido)로 적기도 했다. 방(Pang H. C.) 목사가 목회자로 부임하였고, 사례비는 매월 15불 정도였다. 이 가운데 절반을 요츠야선교부가 보조하였다. 1935년부터는 장신주 목사가 오봉 그리스도의 교회와 평지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동시에 섬겼다. 평지동교회는 소속을 명확히 하지 않다가 끝내 그리스도의 교회로 남았다. 1939년에 예배당이 건축되었다. 오웬 스틸(Owen Still) 선교사가 1939년 후반기에 방문하였을 때 성도들이 마루, 창, 문을 달지 못한 채 건축 중인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선교사가 다녀간 이후 교회가 목재를 마련하였고, 선교부가 창과 문들을 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겨울이 오기 전에 예배당 건축을 마쳤다. 1940년에 서울 아현동 성서훈련학교(Bible Training School) 학생 이용섭이 장신주 목사의 후임으로 오봉교회와 평지동교회의 목회자로 부임하였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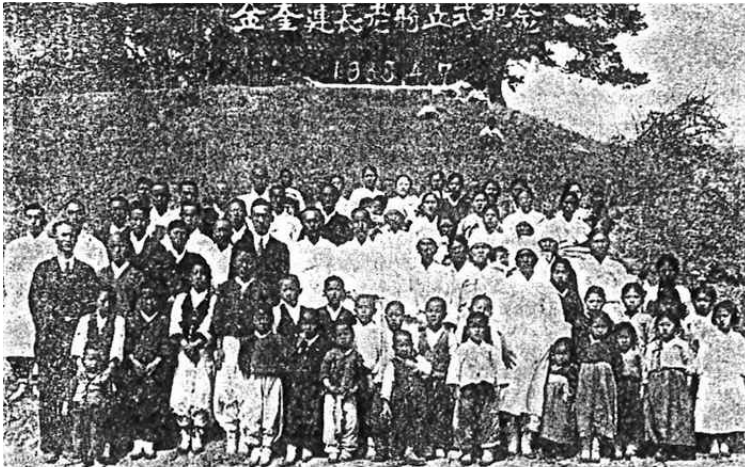
Tokyo Christian, Oct.1933; Dec.1933; Jan.1935; Apr.1939; Dec.1939; Mar.1940; Nov.1940;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쿰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4) 정주군 용포동(龍浦洞) 그리스도의 교회(基督敎會)



평북 정주군 고안면 용포동 그리스도의 교회
 도쿄 요츠야선교부의 윌리엄 D. 커닝햄과 토마스 G. 히치가
 방문하였을 당시(1936년 3월경) [출처: Tokyo Christian]

용포동 그리스도의 교회는 평안북도 정주군 고안면 용포동 마을 언덕에 있었다. 1934년에 예배당과 사택을 매입하였으나 협소하였다. 용포동교회에 윤형구 집사가 있었는데 과부였다. 약간의 재산이 있었지만, 길쭉한 단칸방에 부엌이 딸린 허름한 집에 살면서 경건한 삶을 영위하였고 교회를 위해 재물과 시간을 바쳐 봉사하였다. 윤형구는 1934년에 집 근처 큰 부지를 교회에 기증하여 1935년에 예배당이 새로 건축되도록 하였고, 추수감사절에는 170엔을 헌금하였다. 요츠야선교부는 예배당 건축비용의 3분의 1을 지원하였다. 윤형구의 헌신에 감동한 선교부는 자체 제작하여 배포한 1936년 달력에 윤형구의 경건한 모습을 담았다. 이 달력은 천안 독립기념관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 1935년에 류(W. K. Ryu) 목회자가 부임하여 용포동 교회를 섬겼다. 류 목회자는 그해 1935년에 오봉 그리스도의 교회의 박(K. E. Pak) 장로의 딸과 결혼하였다. 또 1935년 4월 7일에는 김규련 집사가 장로로 장립되었다. 1936년 10월 토마스 히치(Thomas G. Hitch) 선교사가 방문했을 당시에 교인이 50여명 있었고, 작은 예배당이 있었지만 오르간(풍금)이 없었고, 목회자도 없었다. 히치 선교사 집회 때 이 작은 예배당에 100여명이 모였다. 1937년에는 제과업자(菓子職)이자 방



평북 정주군 고안면 용포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규련 장로 장립식 기념(1935년 4월 7일) [출처: Tokyo Christian]

를 보조받았다. 1937년 4월 초 요츠야선교부 책임자인 에밀리 커닝햄(Emily Boyd Cunningham) 여사와 젊은 에디스 쉴멜(Edith Shimmel) 선교사가 교통과 숙식과 같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포동교회를 방문하였는데, 처음 보는 외국여성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이 대단하였다. 저녁에 예배당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작은 예배당의 안팎에 가득했다. 선교사들은 단칸방에서 여러 여성 성도들과 함께 잠을 잤다. 1939년과 1940년에 각각 두 차례씩 오웬 스틸(Owen Still) 선교사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성도들 가운데 두 명의 경찰이 있었는데, 진심으로 예배에 참석하였으며, 오웬 선교사 일행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도 잤다.

현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였던 최성진(崔成珍)이 용포동 그리스도의 교회와 문인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목회자로 동시에 섬겼다.

최성진(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와룡동 427번지)의 포교계와 용포동교회(평안북도 정주군 고안면 용포동 170번지)의 포교소설치계는 1937년 5월 12일 개설되었다. 최성진은 도쿄 요츠야 선교부로부터 매달 8불 50센트를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Feb.1935; Jun.1935; Jul.1935; Nov.1935; Dec.1936; Jun.1937; Jul.1937; Apr.1939; Dec.1939; Mar.1940; Nov.1940; 「조선총독부관보」1937.6.1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쿰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5) 정주군 문인동(文仁洞) 그리스도의 교회(基督敎會)

문인동 그리스도의 교회는 평안북도 정주군 옥천면 문인동 면소재지에 있었다. 1936년 10월에 토마스 히치(Thomas G. Hitch) 선교사가 방문했을 당시에 교인 30여명에 집사들이 있었으나 목회자가 없었다. 자체 예배당 건물이 있었고 발전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두 명이 서울 성서훈련원에 입학하였다. 1937년에는 제과업자(菓子職)이자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였던 최성진(崔成珍)이 문인동 그리스도의 교회와 용포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목회자로 동시에 섬겼다. 최성진은 문인동교회에서 1937년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특별집회를 개최하였다. 최성진(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와룡동 427번지)의 포교계와 문인동 그리스도의 교회(평안북도 정주군 옥천면 문인동 510번지)의 포교소설치계는 1937년 5월 12일 개설되었다. 최성진은 도쿄 요츠야선교부로부터 매달 8불 50센트를 보조받았다. 1939년 오웬 스틸(Owen Still) 선교사가 이곳을 방문해서 겪어본 최성진은 환갑을 넘긴 나이였지만 제대로 된 목회자였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Dec.1936; Dec.1937; Apr.1939; Dec.1939; Mar.1940; Nov.1940; 「조선

총독부관보』1937.6.1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6) 정주군 약수포 그리스도의 교회(基督敎會)

약수포 그리스도의 교회는 평안북도 정주군에 있었다. 정주군에는 약수로 유명한 곳이 네다섯 곳이나 있어서 약수포교회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문인동교회가 있었던 정주군 옥천면 월옥동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월옥동에 약수포가 있었고 석간수로서 질병에 특효가 있다 하여 국내는 물론 만주에서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니 숙박업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약수포교회의 예배당은 집사인 호텔주인에 의해서 여름휴양지에 지어졌다. 여름에는 예배당에서 모이고, 난방문제로 겨울에는 집사의 집에서 모였다. 1936년 10월에 토마스 히치(Thomas G. Hitch) 선교사가 방문했을 당시에 교인 10여명에 집사들이 있었으나 목회자가 없었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Dec.1936; Nov.193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7) 정주군 근담동(近潭洞) 그리스도의 교회(基督敎會)



평북 정주군 관주면 근담동 그리스도의 교회(1935년 9월)
[출처: Tokyo Christian]

근담동 그리스도의 교회는 평북 정주군 관주면 근담동에 있었다. 1935년에 개척되어 50명이 침례를 받았고, 출석인원이 40-90명에 달하였다.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을 시작하여 1936년 초에 거의 완성을 보았다. 그러나 1937년부터 선교부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Apr.1936;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8) 신의주(新義州) 그리스도의 교회(基督敎會)

도쿄 심천조선인기독교교회(후카가와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사였던 주정국이 한국을 다녀온 직후 신의주에 교회를 개척할 목적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1937년부터 평안북도 신의주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주정국 목사는 김성산 목사가 구성군의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자 1938년에 방현교회에 담임목사로 부

임하여갔고, 김명철이 신의주에 파송되어 매주 세 차례 예배를 인도하였다. 주정국의 노력으로 구성군과 정주군의 다섯 개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합심하여 신의주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려는 노력을 진행하였고, 도쿄 요츠야선교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선교부로서는 선교지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주정국 목사는 1938년 9월 서울에서 신의주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시도하였다. 1939년 전반기에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장로들 가운데 한 명을 파송하여 그의 집에서 개척사역을 지속시켜가도록 하였다. 신의주교회가 개척되는 동안 14명이 침례를 받은 적이 있고,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 이인범 목사가 신의주에서 한 달 정도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신의주교회는 선교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목회자를 상주시키지 못함으로써 개척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Nov.1938; Dec.1939;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9) 평안남도 중화군 동두면(東頭面) 대류리(大柳里) 그리스도의 교회 (基督敎會)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원균 목사가 1933년 9월에 평안남도 중화군 동두면 대류리교회에서 집회를 갖고 23명에게 침례를 베풀고, 한 명의 장로, 세 명의 집사를 세웠으며, 채 혹은 최(K. P. Cheh) 목사가 파송되었다. 1934년에 대류리교회는 부지를 매입하였다. 또 교인들 중 한 명이 예배당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충분히 공급하였다. 평안북도 구성군의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원도 있었다. 이에 교인들은 요츠야선교부에 의지하지 않고 합심하여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대류리교회는 자존 자립에 힘쓰는 교회였으므로 어느 순간 선교부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단절되었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Dec.1934; Jan.1935; Feb.1935; Apr.1936;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